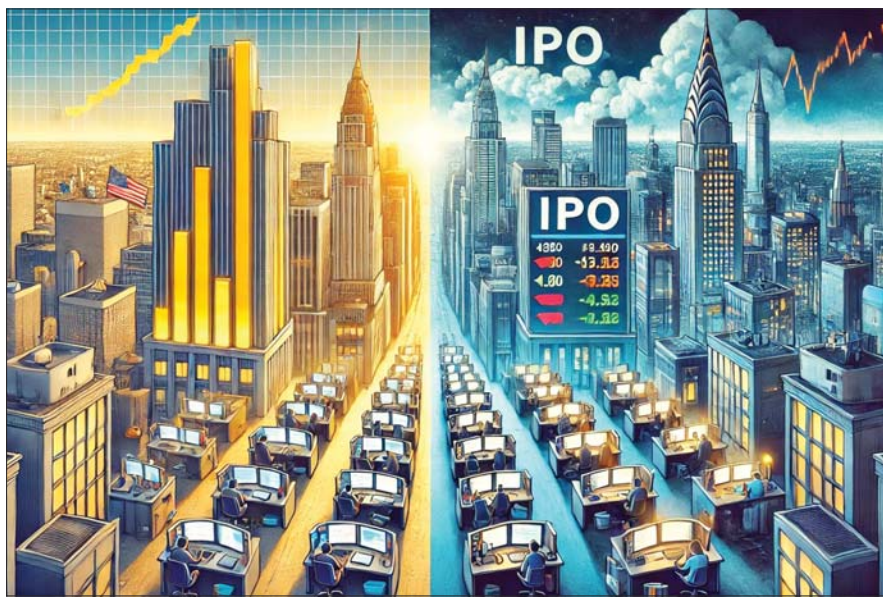


# ‘IPO 슈퍼워크’ 진입에 분주한 대형사… 중소형사는 ‘조용’

유안타·SK·현대차·상상인증권  
올해 기업공개 실적 ‘0건’ 집계  
하반기 공모주 일정 몰려있지만  
대부분 대형사 주관… 양극화 심화  
중소형사, 부동산 PF 부실 타격 영향

성수기에 진입한 공모주시장에서 대형 증권사들이 치열한 주관 실적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중소형사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증권사들이 몸살을 앓으면서 자본 규모에 따른 실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안타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의 기업공개(IPO)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 4개 증권사의 지난해 평균 실적은 1.75건이었으나 올해는 전무하다. 주관 실적 상위 4개 증권사의 평균은 8건이다. 올해 유안타증권은 원투씨엠의 주관을 맡았었지만 해당 기업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이미지.

이 상장 계획을 철회했으며, SK증권 역시 대표주관사로 선정된 로직헬스케어의 연내 상장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번 주 ‘IPO 슈퍼워크’가 시작되면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대형사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에이치엔에스하이텍, 씨메스, 클로봇, 웨이비스 등 4건의 일반 청약이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모주 일정도 몰려 있지만 대부분 대형사들이 주관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시작된 업황 둔화가 특히 중소형사에 강하게 적용되면서 희비가 교차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소형사들은 대부분 ‘원툴(한 가지를 능숙하게 하는 것)’ 전략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주력 사업이 무너진 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사들의 주관 실적 순위는 아직 판가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기업공개(IPO)를 진행한 케이뱅크를 비롯해 더본코리아, SGI서울보증보험 등 ‘조 단위 대어’ 기업들의 증시 입성을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케이뱅크는 예상 시가총액 최소 3조9586억원에서 최대 5조원의 몸값을 받으면서, 과대평가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 측은 “케이뱅크는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상태인 만큼 흥행 여부가 더욱 주목된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

증권 등이다.

KB증권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올해 IPO 주관 실적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다만 3분기 들어서 미래에셋증권이 전진건설로봇·산일전기 등 중형급딜을 주관하면서 1위 자리를 뺏기는 등 5위까지 밀려났다. 3분기 기준 1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증권은 4분기에도 조 단위 대어인 SGI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다수의 딜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에이치엔에스하이텍, 클로봇, 와이제이링크 등 다수의 IPO가 대기 중이다. 이번 주에도 청약 일정 중 절반이 미래에셋증권 담당인 셈이다.

하지만 각사들의 주관 실적 차이가 근소한 만큼 1위 추격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요 증권사들의 IPO 인수금액은 미래에셋증권 5444억원, 한국투자증권 4347억원, NH투자증권 3592억원, KB증권 3252억원 등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디딤펀드 활성화 힘 쏟는 금투업계… 차별·실효성은 ‘글썩’

상품 출시 3주 만에 ‘디딤펀드 출범식’  
기존 채권 혼합형·ETF 상품 이미 존재  
디폴트옵션 승인 받지 않은 점도 문제

금융투자협회와 운용업계가 디딤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 않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협회와 운용업계가 상품 출시 3주 만에 출범식을 연 것도 디딤펀드에 대한 차별성과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투협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디딤펀드를 출시한 25개 자산운용사와 함께 ‘디딤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디딤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연기금형 자산배분형 펀드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디딤펀드는 은행 예·적금에 쏠린 퇴직연금자산을 펀드 시장으로 가져와 실질적 노후 준비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가입자 중 약 87%는 ‘초저위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디딤펀드 출범식에서 25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상품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해, 1년간 수익률이 평균 3.47%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투협은 운용사 대표들과 함께 출범식을 갖고 디딤펀드를 널리 보급하며 책임 운용 및 수익률 제고의지를 다졌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연금투자 근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외됐던 자산배분형 밸런스펀드(BF)를 그 중심으로 가져오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디딤펀드가 출시됐다”며 “협회는 출시에 역할을 마치는 게 아니라 디딤펀드가

시장에 안정하게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호주의 디폴트옵션인 마이슈퍼(Mysuper)는 기금별 운용 상품을 단일화해 가입자 선택편의성, 상품의 비교가능성, 운용사 관리효율성 등을 증대시키며 대표상품 형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각 운용사별 단수의 대표 자산배분형 BF를 디딤펀드로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디딤펀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업계 움직임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디딤펀드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은 편이다. 자산운용사들이 은행의 퇴직연금 상품보다 높은 목표수익률과 자산배분 전략을 내세우며 상품을 소개하고 있으나 아직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기존의 안정적인 채권 혼합형 상품이나 ETF 상품들이 이미 존재해, 디딤펀드가 특

별한 매력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운용사별로 평가 특징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디딤펀드가 기존 펀드와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흐름에 맞지 않다”, ‘소구점이 부족하다’ 등이 어찌보면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디딤펀드는 퇴직연금의 근간이 되는 밸런스펀드이기 때문”이라며 “디딤펀드는 베스트셀러가 아닌 스테디셀러”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디딤펀드가 퇴직연금 사전 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받으면 은행 창구로부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적격 상품이 타깃데이트펀드(TDF)로 구성돼 있고 BF유형은 적은 상황이다.

디딤펀드는 업계의 공동브랜드이지만 각 운용사들이 ‘차별화’된 상품으로 수익률을 내느냐에 따라 향후 업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업계 다른 관계자는 “운용사와 협회 모두 이상품들이 잘되기를 바라며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매력 요소가 부족해 자금 유입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성전자, 外人 순매도 ‘역대 최장’… 증권가 “기업가치 저평가”

(26거래일 연속)

ASML ‘실적쇼크’에 주가부진  
증권가, 매수의견선 ‘동상이몽’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연일 악화되며 삼성전자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기업가치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매수’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종가는 2.46% 하락한 5

만9500원을 기록했다. 전거래일에 외국인인 매도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개인투자자와 기관의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리며 ‘6만 전자’를 탈환했지만 이날은 장 초반부터 2.62% 하락한 5만94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로써 이날까지 26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면서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기록은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25거래일이었다. 이날 외국인은 2734억원어치를 순매도 했다. 그러나

개인은 3128억원치를 순매수하면서 장 초반보다 낙폭을 줄인 채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부진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실적 쇼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은 15일(현지시간) 내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ASML은 중국 매출 감소를 예상하며 내년 순매출액이 30억~35억 유로(약 4조4600억~5조2000억 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ASML은 내년 매출 전망도 300억~

350억 유로로 기존(300억~400억 유로)보다 하향 조정했다. 그 결과 이날 뉴욕증시에서 ASML은 16.26% 급락했다.

ASML의 부진으로 뉴욕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종목 주가도 덩달아 떨어졌다. 엔비디아는 4.5%, AMD는 5.2%, 브로드컴은 3.4% 하락했고, 이에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5.3%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매수 의견’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 D램 생산능력(Capa)의 약 30%가 HBM으로 전환되면 공급부족이 발생해 메모리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

다”며 “내년 업황 개선을 삼성전자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바닥권 주가에도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낙폭과대 주가, 밸류에이션과 최고위층 반성문을 근거로 저가매수당위성과 시급성을 주장하는 시장 일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는 상당기간을 두고 싸움이 가능하고, 삼성전자 보유에 따른 추가 기회비용이 제한되는 초장기, 극소수 개인 투자자 일방에 국한된 단편적 전술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